Check for updates

Analysis of Liminal Space Vulnerabilities and Crime Environments

Yu Jin Won[1], Taig Youn Cho[2*]

[1]Major in Spatial Design, Graduate School, Ph.D.,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Professor,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Background Urban crime environments are increasingly understood as outcomes not only of social factors but also of spatial structur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particular, transitional urban spaces where spatial ownership, functional identity, and surveillance become ambiguous have emerged as critical environments associated with crime risk and fear of crime. These spaces, often referred to as liminal spaces, exhibit spatial uncertainty and behavioral ambiguity that may increase crime opportunities.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liminal spa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rime environments in the Sintopyeong food-alley district (Sutaek 3-dong, Topyeong-dong 977-18 vicinity, approx. 5.4 ha, zoned as Second-Class General Residential) of Guri City, Korea. Crime statistics (2022-2024), physical spatial-structure analysis, zone-specific field observation, and resident perception surveys were integrated to identify spatial vulnerabiliti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ssociated with crime-prone transitional spaces.

Results Crime occurrences are concentrated not in the primary street frontage but in four transitional sub-zones: a side parking area at the boundary between neighborhood-living facilities and housing, a parking area near vacant/abandoned houses, a park rear access path, and a narrow residential alley-each exhibiting low illumination, visual obstruction, unclear territorial boundaries, and weak natural surveillance. Night-time avoidance rates in these zones (59-92%) far exceed the non-liminal control zone (28%), even where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or lighting is installed.

Conclusions Crime environments in mixed-use urban districts should be interpreted throug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iminal spaces rather than solely through conventional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deficiencies. Spatial design strategies focusing on transition management, visibility continuity, territorial reinforcement, and spatial activation are necessary for improving urban safety environments.

Keywords Liminal Space, Spatial Design, Crime Environment, CPTED, Perceived Safety

This paper is based on a port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A Study on Cognitive Risk Structure and Fear of Crime Formation Mechanisms in Urban Liminal Spaces (Hongik University, 2026), with revisions and modifications.

*Corresponding author: Taig Youn Cho (taigyoun@hongik.ac.kr)

Citation: Won, Y. J., & Cho, T. Y. (2026). Analysis of Liminal Space Vulnerabilities and Crime Environment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9*(4), 451-465.

http://dx.doi.org/10.15187/adr.2026.11.39.4.451

Received : Mar. 20. 2026 ; **Reviewed :** Sep. 21. 2026 ; **Accepted :** Sep. 21. 2026
pISSN 1226-8046 **eISSN** 2288-2987

Copyright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educational and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 범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에 의해 촉발되거나 강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최근 급속한 도시 재개발과 생활권 확장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공원 등의 기능이 혼재된 경계 공간(liminal space)이 증가하고, 낮과 밤의 이용 양상이 급격히 전이되는 공간이 새로운 도시 취약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특정 시간대에는 활발히 이용되지만, 다른 시간대에는 관리와 감시 주체가 불명확해지며 사실상 무주(無主) 상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며, 범죄 취약지로 부상하고 있다(Trigg, 2012).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신토평먹자거리 일대는 이러한 도시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지역은 음식점과 주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가로이면서 동시에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공원·교육시설이 인접한 복합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낮 시간대에는 근린생활시설 이용이 집중되지만, 심야시간대에는 영업 종료와 함께 인적 밀도가 급감하고, 조명·순찰·자연적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범죄 위험과 주민의 체감 불안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접근(Crowe & Fennelly, 2013)으로 평가됐으나, 신토평먹자거리와 같은 복합 경계 공간에서는 CPTED의 요소가 물리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기대한 예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안전 수준 또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이는 범죄 문제를 시설 부족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는, 공간 구조 자체가 갖는 전이성과 경계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리미널 스페이스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범죄환경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경기도 구리시 신토평먹자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공간구조와 범죄 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리미널 스페이스와 범죄환경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미널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범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디자인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존 범죄예방 연구가 시설 중심의 접근에 집중되어 온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 공간의 전이 구조를 고려한 공간디자인 관점의 범죄환경 해석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신토평먹자거리 일대로 한정하며, 신토평먹자거리 중심 가로와 그에 인접한 후면 주차장·공원 진입부·이면 골목을 포함하는 약 5.4ha의 구역이다(Figure 3). 해당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음식점·주점 등은 「건축법 시행령」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 명칭을 법령상 용도 구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교육시설, 공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시간적 범위는 범죄 통계의 경우 2022~2024년 3개년을, 주민 인식조사 및 현장조사는 2024~202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는 다음의 3단계 분석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CPTED의 개념 및 세대별 발전 단계, 국내외 기존 연구의 한계 등을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범죄 통계와 현장조사(총 12회, 주간 6·야간 6)를 통한 공간구조 분석 및 범죄 위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대상지 내부를 4개 리미널 하위구역과 1개 비리미널 대조구역으로 구분하여 5대 리미널 특성의 적용강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주민 설문(구리경찰서 CPTED 설문 n=248, 치안설문 n=487[1])과 현장 심층 인터뷰(n=15)[2]를 통해 범죄 불안을 유발하는 인지·심리 요인을 도출하고, 공간디자인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다.

1) 구리경찰서가 2025년에 실시한 두 건의 설문조사로, CPTED 주민설문은 행정복지센터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 248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7일~5월 16일에, 치안설문은 구리시 거주 또는 직장인 시민 487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일~5월 11일에 실시되었다.

2) 수택3동 거주자 및 대상지 방문자 15명을 대상으로 준구조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리미널 스페이스 개념과 CPTED의 관계를 공간디자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기존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가 전제해 온 공간 조건과, 리미널 스페이스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1. 리미널 스페이스의 개념과 공간디자인적 의미

리미널 스페이스는 인류학자 반 게넵(Van Gennep, 1909/1960)의 통과의례 이론에서 '경계에 놓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으로, 현대 도시 연구에서 '경계적·전이적 공간'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Turner, 1969), 트리그에 의하면 경계에 놓여 있으나 특정 의미나 기능이 확정되지 않은 전이적 공간(Trigg, 2012)으로 정의된다.

도시 공간에 적용할 경우, 리미널 스페이스는 기능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채 시간·이용·주체·행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이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도시 구조의 일부이지만, 이용 규범과 사회적 통제가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공간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공간디자인 관점에서 리미널 스페이스는 단순히 잔여 공간이나 비활성 공간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이용 패턴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전이적 공간 유형이다. 서로 다른 기능과 공공·사적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공간은 낮과 밤, 평일과 주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을 띠며, 공간의 규범과 사용 방식이 불안정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도시범죄학에서 말하는 범죄 유인 공간(crime attractor, 범죄자가 범죄 기회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오는 공간) 또는 범죄 촉진 공간(crime generator, 감시 부재·관리 공백처럼 범죄 실행을 사후적으로 용이하게 만드는 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며(Brantingham & Brantingham, 1995), 구조적 취약성과 심리적 불안이 동시에 축적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도시 리미널 스페이스는 형성 조건에 따라 경계 전이형(서로 다른 기능이 맞닿는 접경부), 시간 전이형(시간대에 따라 성격이 급변하는 공간), 기능 소멸형(공폐가 등 본래 기능을 상실한 공간), 통과 잔여형(후면 골목·틈새 등 통과 기능만 남은 공간), 복합 혼재형(여러 기능이 동시에 중첩되는 구역)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Won, 2026). 이 유형들은 실제 도시 공간에서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 2. 도시범죄와 리미널 스페이스

기존 도시 범죄환경 연구는 범죄 발생을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통제 수준, 개인적 특성 등으로 설명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간은 범죄를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배경 변수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범죄가 특정 장소에 반복적으로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간 자체를 분석의 핵심 단위로 삼는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리미널 스페이스는 이러한 논의에서 범죄환경 형성의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 작용한다. 경계적 공간은 관리와 감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공간의 소유와 책임이 불분명해지기 쉽다. 이로 인해 범죄 기회가 증가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체감 불안과 회피 행동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리미널 스페이스는 범죄 발생의 결과가 아니라, 범죄환경이 형성되는 구조적 배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2. 1. CPTED 이론의 전제와 한계

CPTED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유지관리 등의 원리를 통해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Cozens & Love, 2015; Table 1). 이러한 원리는 기능과 이용 주체가 비교적 안정된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으며, 학교 주변, 주거단지, 공원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다.

Table 1 CPTED Concepts and Features by Generation

구 분	개념	특징
1세대 (1970~1990)	물리적 공간의 조도·시야· 경계·출입 통제 강화 초점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유지관리 강화
2세대 (2000~2010	사회적 환경과 공동체 응집력 차원으로 확장, 공동체 활성화와 활동 지원을 강조	단순 시설물 설치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CPTED로 평가
3세대 (2010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CPTED 개념 발전	CCTV, IoT 조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시스템을 통합하여 데이터 기반 예방과 회복 탄력성을 목표

그러나 CPTED는 공간 질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간대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급변하는 리미널 스페이스에는 적용상의 한계를 지닌다. 리미널 스페이스에서는 자연적 감시가 일시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영역성 역시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CPTED 요소가 물리적으로 설치되더라도 범죄예방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 2. 2. 공간구조 인지 및 범죄환경 분석 프레임

본 연구는 리미널 스페이스를 공간구조, 이용자의 인지, 범죄환경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파악한다. 즉, 특정 공간구조가 이용자의 인식과 행동을 형성하고, 이러한 인지가 반복될수록 범죄 위험과 체감 불안이 축적·재생산된다는 분석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CPTED는 이 연쇄 구조에서 공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디자인 도구로서 이용된다. 이와 같은 분석 프레임은 범죄를 개별 사건의 집합이 아닌, 공간 구조와 이용 전이의 결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공간디자인 연구에서 범죄환경을 다루는 새로운 해석 틀을 제공한다.

2. 2. 3. 리미널스페이스의 상관적 관점

리미널 스페이스와 인간 반응을 동시에 변화하는 변수들로 파악하며, 인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리미널 스페이스는 직접적으로 불안을 유발(인과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 회피, 저이용 상태와 상호 강화적 관계를 형성(상관적)한다.

즉, 리미널 스페이스를 범죄 두려움의 단일 원인으로 환원하지 않고, 환경적 모호성이 인간의 진화적 경계 반응을 촉발하는 인과적 경로와 도시의 맥락 속에서 불안감, 관리부재 등 상호 강화되는 상관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리미널 스페이스는 범죄 발생률보다는 범죄 두려움과 더 강한 상관성을 가지며, 이는 공간의 물리적 위험성보다 지각된 모호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기인한다(Slovic,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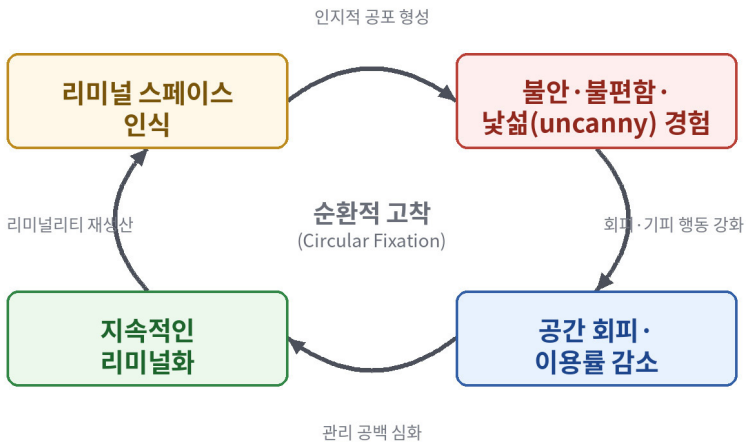

Figure 1 The Circular Structure of Liminal Space and Crime Occurrence

2. 3. 현상학적 언캐니(uncanny)와 리미널 스페이스의 인지적 특성

최근 도시 공간 연구에서는 범죄 불안을 단순한 공포 감정이 아닌,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지각적·존재론적 불안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리미널 스페이스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경험되는 공간적 모호성을 유발하며, 이러한 현상은 현상학적 언캐니(uncanny)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Trigg, 2012).

트리그(Trigg)는 도시의 폐허, 빈집, 방치된 골목과 같은 공간을 '기억이 중첩된 낯선 장소'로 설명하며, 장소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기억과 정서가 층위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적 장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리미널 스페이스는 이러한 현상학적 낯섦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 유형이다. 빈 골목, 폐업한 점포, 야간의 먹자골목과 같은 공간은 기능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적 리듬과 행위 단서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 4. 개체발생적 기억과 범죄 불안의 형성

리미널 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인간의 기억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개체발생적 기억(ontogenetic memory)은 개인이 살아오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감각 경험, 정서적 사건을 통해 축적한 기억을 의미한다. 이는 종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계통발생적 기억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어두운 골목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불안 반응은 계통발생적 기억에 기초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과거에 위협을 경험했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학습한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강화된다(Vogt, 2005).

또한 해슬턴과 버스(Haselton & Buss, 2000)의 오류관리이론에 따르면, 실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방치된 환경 신호만으로 위협을 과대 탐지하는 경향이 진화적으로 적응적이다.

따라서 범죄 불안은 실제 범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억과 지각이 중첩된 공간 경험을 통해 선행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리미널 스페이스가 범죄환경으로 전이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심리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간디자인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3. 범죄현황 및 공간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신토평먹자거리 일대의 범죄발생 특성을 시간적·공간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당 지역이 리미널 스페이스로 작동하게 되는 공간구조적 요인을 도출한다.

3. 1. 경기도 구리시 범죄발생 현황의 구조적 특징

2022~2024년 구리시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3],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성범죄와 절도 범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2). 범죄 발생 시간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전체 범죄의 약 60% 이상이 2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도시 공간의 관리·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시간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행정동별 분포를 보면 수택3동(신토평먹자거리 포함)은 2022년 182건에서 2024년 228건으로 25.3% 증가하여 구리시 행정동 가운데 3개년 연속 증가한 지역이며, 이는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와 다세대 주거시설이 혼재된 복합 생활권에서 나타나는 범죄다발화 경향과 일치한다.

3)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성범죄·절도·폭력을 말한다. 자료: 구리경찰서(2025), 「2026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지 수요조사」.

Table 2 Current Status of Total Crimes and 5 Major Crimes in Guri City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율	증감추이
살 인	3	-	1	↓	↓
강 도	1	-	2	↑	↑
성범죄	62	70	88	+42.0%	↑↑
절 도	736	873	965	+31.1%	↑↑
폭 력	1,498	1,394	1,526	+1.9%	=
5대범죄	2,300	2,337	2,582	+12.3%	↑
전체범죄	7,653	7,896	8,895	+16.2%	↑

3. 2. 대상지 공간구조 및 이용 특성

신토평먹자거리 일대는 음식점과 주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공원,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낮 시간대에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과 생활 활동이 혼재된 활발한 환경을 형성하지만, 야간 시간대에는 근린생활시설 영업 종료와 함께 공간의 성격이 급격히 변화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후면부와 주차장, 공원과 접한 구간은 낮에는 보조 공간이나 통과 공간으로 기능하나, 야간에는 이용 빈도가 급감하면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은 물리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전형적인 리미널 스페이스로 전이된다. 이처럼 공간의 관리 상태와 환경 질은 범죄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환경이 방치될 경우 범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Wilson & Kelling, 1982).

경찰청 GEO-PROS의 커널 밀도 추정4) 결과 이 지역은 1~2등급(상위 10%) 위험권역으로 평가되었다(Figure 2). 위험지점은 먹자거리 중심가 후면주차장, 오성공원 진입부, 공·폐가 인근 이면도로, 주거시설 사이 골목 등이며, 이들은 모두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공원 기능이 혼재·전이되는 경계적 구간에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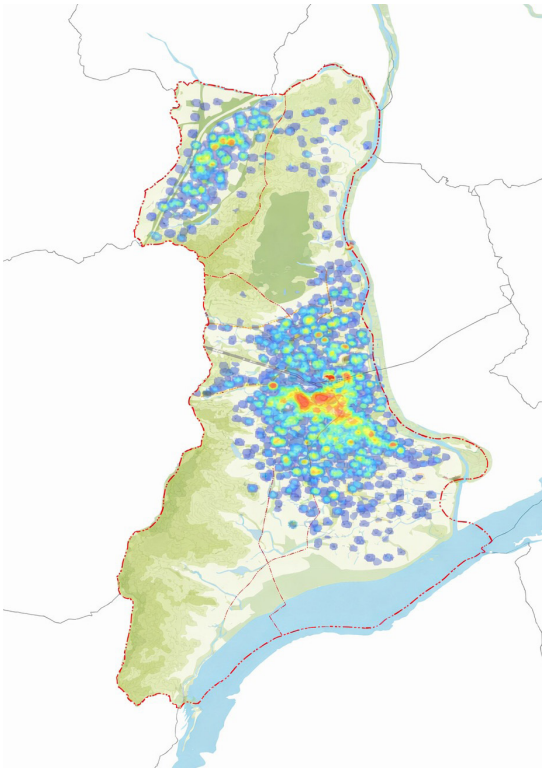

Figure 2 Guri City: Geo-Pros Hotspot Analysis (5 Major Crimes)

4) GEO-PROS(Geo-spatial Police Report Operation System)는 경찰청의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이다. 2022~2024년 5대 범죄 및 112 신고 자료에 탐색 대역폭 200m, 셀 크기 10m×10m를 적용한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결과를 활용하였다.

밀도 추정 결과가 어떠한 공간 조건과 대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지 구역계를 설정하고(Figure 3), 현장조사를 통해 구역 내부의 물리적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구역 내부는 먹자거리 중심 가로 양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선형으로 배치되고, 그 배후에 다세대주택 중심의 주거시설이 블록을 이루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의 후면·측면은 별도의 완충 공간 없이 주거시설 및 공원과 맞닿으며, 그 경계는 주차장·이면 골목·공원 진입로가 형성한다. 가로체계는 폭 4~6m의 중심 가로와 폭 1.2~2.0m의 이면 골목으로 위계화되어 있으며, 이면 골목은 굴절되거나 출구가 하나인 구조가 많다. 또한 구역 내 가로등 37개 중 19개가 노후·고장 상태였고, 공폐가 6개소가 주거시설 블록 내부에 산재하였다.

핫스팟 구역의 물리적 조건을 현장조사로 점검한 결과[5], 기능적 정체성이 모호한 공간이 91.3%, 시야 차폐가 강한 공간이 87.2%,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실질적 관리가 부재한 공간이 94.6%, 단일 출구 또는 탈출 경로 파악이 어려운 공간이 78.5%를 차지하였으며, 야간 이용자 밀도는 인접 비리미널 구역 대비 평균 82.4% 감소하였다. 즉 밀도 추정상의 고위험 구간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이 맞닿는 접경부의 주차장·이면 골목·공원 진입로라는 구체적인 물리적 조건과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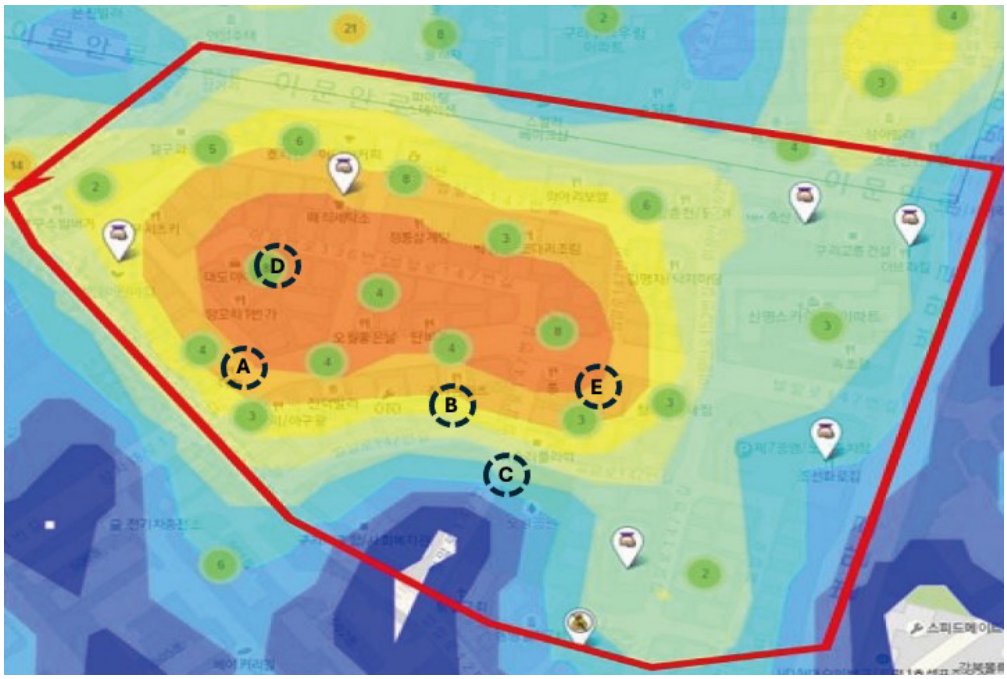

Figure 3 Study Boundary and Sub-zone Locations on the Kernel Density Map
주: 적색 실선은 대상지 구역계(약 5.4ha), 점선 원(A~E)은 4.1절의 하위구역 위치. 배경은 경찰청 GEO-PROS 5대 범죄 커널 밀도(2022~2024년).

해당 구역들은 가로 조도 평균 4.8lx로, 주변 근린생활시설 가로 평균(13.2lx)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공간 가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야 차폐율이 35% 이상인 블록이 전체의 43%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근린생활시설 후면과 공원 배후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5) 각 비율은 GEO-PROS 1~2등급 핫스팟 구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2024~2025)와 GIS 분석 결과이며, 세부 내용은 Won(2026)을 참조.



Figure 4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stination

3. 3. 범죄분포와 리미널 스페이스의 상관성

범죄 발생 지점을 공간적으로 중첩 분석한 결과, 범죄는 근린생활시설 전면부보다 후면부, 주차장 경계, 공원 배후부, 이면도로 등 경계적·전이적 공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범죄 위험이 특정 시설의 결핍보다는 공간 이용의 전이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전이적 공간은 일정 수준의 통행이 유지되면서도 책임과 감시가 부재한 상태를 형성하며, 이는 리미널 스페이스의 핵심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토평먹자거리의 범죄환경은 개별 사건의 집합이 아니라, 리미널 스페이스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Cozens & Love, 2015).

또한 낮에는 활발히 이용되지만, 야간에는 소유·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며 이용자가 감소하고 감시가 단절되는 '경계적·전이적 공간'으로 전환된다. 현장조사(주간 6회·야간 6회)에서도 주간에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과 거주자, 통학 학생이 주로 이용하던 공간이 야간에는 귀가하는 거주자와 주취자, 체류하는 청소년의 공간으로 바뀌고, 점포 운영자에 의한 비공식 감시가 영업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간을 "crime-prone transitional areas"라 지칭하며, 공간이 '일시적 무주(無主) 상태'가 될 때 범죄 발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Cohen & Felson, 1979).

이상의 결과를 리미널 스페이스의 전제 조건인 시간·이용·주체의 전이에 따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대상지는 세 가지 전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는 신토평먹자거리가 리미널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3 Evidence of Temporal, Use, and User Transition in the Study Area

전이 조건	대상지 근거	자료
시간의 전이	불안 시간대가 21~24시(56.1%)와 00~03시(50.1%)에 집중되며 수택3동 응답자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영업 종료 후 리미널 구역의 야간 이용자 밀도는 인접 비리미널 구역 대비 평균 82.4% 감소(Zone A 96%)	치안설문(n=487, 수택3동 n=74), 현장조사
이용의 전이	주간에는 주차·하역·통행에 쓰이던 근린생활시설 후면 주차장과 이면 골목이 영업 종료 후 사실상 무이용 상태로 전환되어, 물리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방치된 공간이 됨	현장조사 (주간 6회·야간 6회)
주체의 전이	주간의 근린생활시설 이용객·거주자·통학 학생이 야간에는 귀가 거주자·주취자·체류 청소년으로 바뀜. 점포 운영자에 의한 비공식 감시가 사라지고, 자율방범대 순찰 제외 구간 및 주말 야간순찰 미실시로 공식 감시도 이를 대체하지 못함	현장조사, 심층 인터뷰(n=15)

4. 공간환경 문제 진단

본 장에서는 신토평먹자거리 일대의 공간환경 문제를 리미널 스페이스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이는 범용적 CPTED 요소의 단순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범죄환경과 체감 불안으로 전이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이다.

4. 1. 진단의 관점과 분석 기준

공간환경 진단은 물리적 환경 요소, 공간 경계와 동선, 이용 행태, 인지·심리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환경 요소라도 일반적인 공간과 리미널 스페이스에서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특성이 대상지의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지를 실증하고자, 현장조사(2024~2025년, 총 12회)와 주민 심층 인터뷰(n=15)를 통해 대상지를 4개의 리미널 하위구역과 1개의 비리미널 대조구역으로 구분하였다(Figure 3, Figure 5).

각 구역에는 리미널 스페이스의 5대 특성, 즉 경계성(공간의 소속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 불확정성(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 비일상성(친숙한 공간이 낯설게 경험되는 상태), 감성적 긴장(물리적 위협 없이 위협을 상상하는 상태), 통제감 부재(탈출 경로와 감시가 불확실한 상태)를 적용하여 강도를 5단계로 판정하였다.

2.1절의 다섯 유형은 대상지 안에 모두 나타나지만, 하위구역 구분에는 경계 전이형·기능 소멸형·통과 잔여형의 세 유형을 적용하였다. 시간 전이형은 영업 종료에 따른 주·야간 전환이라는 시간적 조건으로서 모든 하위구역에 공통으로 작용하므로 별도 구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각 구역의 야간 지표에 반영하였다. 복합 혼재형은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공원 기능이 중첩된 대상지 전체의 성격으로, 여러 특성이 동시에 강하게 나타나 특정 지점으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 전체를 설명하는 유형으로 두었다(Won, 2026).



Figure 5 Field Photographs of Sub-zones A–E (Sintopyeong Food-Alley District)

Table 4 Sub-zone Classification and Liminal Characteristics

구역	대표공간 (리미널 유형)	핵심 취약성	위험 등급	야간 회피율	CPTED 인지도	이론적 연계
A	근린생활시설 측면 주차장 (경계 전이형)	관리주체 모호, 경계 불명확	높음 (19점)	92%	2.1/5	Newman (1972)
B	공·폐가 인근 주차장 (기능 소멸형)	고립감, CCTV 사각지대	최고위험 (20점)	90%	1.8/5	Wilson & Kelling (1982)
C	공원 후면 진입로 (통과 잔여형)	관리주체 혼재, 시야 차폐율 43%	높음 (17점)	59%	2.3/5	Appleton (1975)
D	주거시설 사이 좁은 골목 (통과 잔여형)	탈출로 불명확, 예측 불가능	최고위험 (20점)	73%	2.5/5	Brantingham & Brantingham (1995)
E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 (비리미널 대조군)	기능 표식 충분, 동선 예측 가능	낮음 (5점)	28%	3.6/5	(대조기준)

* 기호: Zone A~D는 리미널 하위구역, Zone E는 비리미널 대조구역.
* 위험 등급: 5대 특성의 적용강도를 매우 강 5점, 강 4점, 중 3점, 약 2점, 매우 약 1점으로 환산한 합계(5~25점). (등급 구분: 20점 이상 최고위험, 17~19점 높음, 그 이하 낮음).
* 야간 회피율·CPTED 인지도: 현장조사 및 심층 인터뷰(n=15)에서 측정한 구역별 5점 척도 평균(야간 회피율은 백분율 환산, 예: 4.6/5=92%)이며, 치안설문 수택3동 응답(n=74)과 교차 참조함.

4. 2. 물리적 공간환경의 구조적 취약성

현장 조사 결과, 신토평먹자거리 일대에서는 조도 불균형과 시야 차폐가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 근린생활시설 전면부와 후면부 사이의 조도 차이는 야간 보행 환경의 연속성을 저해하며, 후면부와 공원 진입부에서는 시각적 인지가 어려운 수준의 어두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불법 적치물과 건축물 후면 설비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면서 자연적 감시가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취약성은 일반적인 CPTED 공간에서는 보조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리미널 스페이스에서는 공간의 안전성과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간의 경계와 동선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신토평먹자거리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원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공간의 경계가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은 이용자에게 공간의 성격과 행동 규범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영역성 인식의 약화를 초래한다.

또한 차량, 보행자, 주취자의 동선이 중첩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회피 가능성이 저하되고,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동선 구조는 리미널 스페이스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공간 이용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Table 5).

Table 5 Physical Space Environmental Problems

문제유형	공간환경 문제	CPTED 연관성	이론적 연계
조도취약	가로등 37개 중 19개 노후·고장, 오성공원 진입로 평균조도 4.8lx	자연적 감시 저하	Jacobs(1961); Fisher & Nasar(1992)
시인성 저하	불법간판, 가림벽, 적색·청색 간판 혼재로 시각적 혼란	인지적 감시 ·영역성 약화	Newman (1972)
보행불편 및 장애물	파손된 블록, 단차, 불법주차, 쓰레기 적치로 보행 단절	접근통제 실패	Wilson & Kelling(1982)
사각지대	다세대주택 후면, 공폐가 6개소, CCTV 사각 4구간	자연감시 결여	Appleton (1975)
사회적 감시 부재	자율방범대 순찰 제외구간 다수, 주말 야간순찰 미실시	공동체 활동 부재	Jacobs(1961)
심리적 회피공간	오성공원 후면·근린생활시설 이면 골목, 청소년·주취자 이용 잦음	심리적 불안 유발	Trigg(2012)

4. 3. 사회심리적 환경의 취약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론적 범죄예방 요소, 범죄불안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주민치안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Table 6).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식 설문조사(구리경찰서 CPTED 설문 n=248, 치안설문 n=487)는

신토평먹자거리에만 특화되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구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목적의 조사이므로, 설문 결과를 대상지에 특화된 방범 수요조사로 직접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전체 표본 중 수택3동 거주 응답자(치안설문 n=74, CPTED 설문 n=76)의 응답 패턴과, 응답자들이 직접 지목한 범죄취약지역 31개소 가운데 신토평먹자거리(토평동 977-18)가 7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완적 근거로 함께 제시하며, 현장 심층 인터뷰(n=15)를 통해 질적으로 보강한다(Figure 6).

Table 6 Questionnaire Structure for Residents' Security Consultation

이론적 요소	범죄불안 요소	설문문항(범죄불안도 측정)
자연적 감시	조도·시야·CCTV의 가시성	어두운 골목길 불안도 CCTV, 조명 부족 등의 불안도
접근통제	동선 명확성·불법주정차·혼잡	불명확한 귀갓길 경로 불안도 불법주정차, 혼잡의 불안도
영역성	공간 경계 명확성·비정형 공간 불안	특정장소(공폐가·후면도로) 불안도 관리되지 않은 공간 불안도
사회적 응집력	주민참여·협력·공동체감시 결여	감시, 순찰 필요성 인식 위험상황 시 신고의향 이웃 간의 신뢰 정도
인지된 위험	실제 범죄보다 높은 주관적 불안	해당 공간의 실제 범죄 발생 여부와 불안도의 상관성, 시간대별 불안도
리미널 스페이스	전이적·경계적 공간의 감시 단절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공간 유형 도시 리미널스페이스(후면주차장·공폐가·공원 후면부) 불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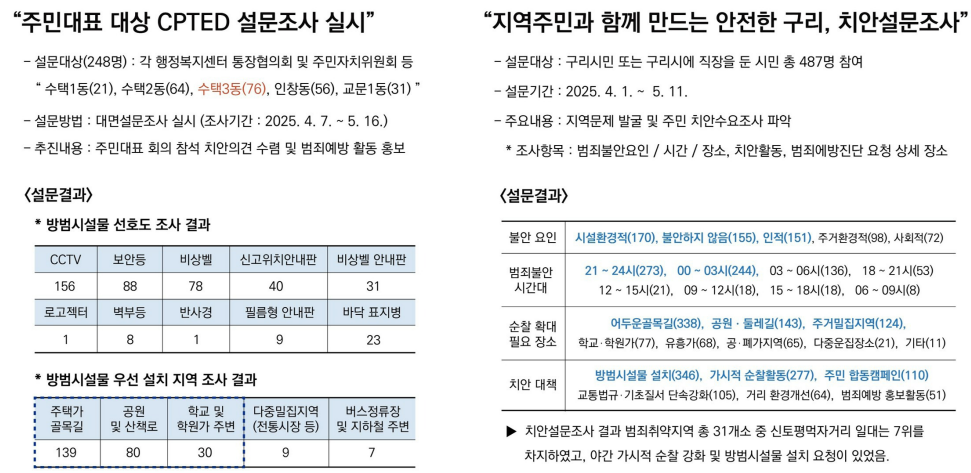

Figure 6 Results of Convergence of Residential Security Surveys

주민 인식조사 결과, 수택3동 거주 응답자의 다수는 신토평먹자거리 일대를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개방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가시성과 사회적 감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순찰 필요 장소 응답에서도 어두운 골목길(69.4%), 공원·둘레길(29.4%), 공·폐가 지역(13.3%)이 상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Zone A~D 유형과 모두 일치하여 설문의 간접적 타당성을 보완한다.

또한 심층 인터뷰(n=15)에서 응답자들은 신토평먹자거리를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리미널 스페이스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용자에게 회피 행동을 유도하고 공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공간 이용 빈도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공간의 무주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Figure 1 참조).

4. 4. 소결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신토평먹자거리의 공간환경 문제는 CPTED 요소의 단순한 미적용이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공원 기능이 혼재된 공간 구조 속에서 리미널 스페이스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관리·감시·이용 주체가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범죄환경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able 4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Zone A~D의 야간 회피율 평균(78.5%)은 비리미널 대조구역 Zone E(28%)를 크게 상회하며, CCTV·조명이 설치된 Zone C에서도 야간 회피율 59%가 유지되는 것은 물리적 시설만으로 리미널 스페이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공간환경 개선은 시설 추가 이전에 공간의 전이 구조를 재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5.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구리시 신토평먹자거리 일대(토평동 977-18 일원, 약 5.4ha, 제2종일반주거지역)를 대상으로, 범죄환경 문제를 범용적 CPTED 적용의 부족이 아닌 리미널 스페이스의 공간구조적·인지적 취약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공원 기능이 혼재된 복합 공간으로서 시간대 전이에 따라 이용 주체와 공간의 성격이 급격히 변화하며, 이 과정에서 관리와 감시의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리미널 스페이스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 내부를 4개 리미널 하위구역(Zone A~D)과 1개 비리미널 대조구역(Zone E)으로 구분한 결과, 범죄와 체감 불안은 대상지 전반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측면 주차장, 공·폐가 인근 주차장, 공원 후면 진입로, 주거시설 사이 좁은 골목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공원이 맞닿는 접경부에 집중되었으며, 이들 구역은 비리미널 대조구역에 비해 5대 특성 강도와 야간 회피율이 모두 뚜렷하게 높았다. 근린생활시설 후면부, 주차장과 공원의 경계, 이면도로 등 전이적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나 사회적·심리적으로는 방치된 상태에 놓이며, 이용자에게 공간의 성격과 행동 규범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다.

5. 2. 리미널 스페이스 관점 공간환경 해석

본 연구는 리미널 스페이스를 단순히 '취약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 공간 내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전이적 공간 유형으로 규정한다. 신토평먹자거리 사례는 리미널 스페이스가 적절히 관리·설계되지 않을 경우, 범죄환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조도 불균형, 시야 차폐, 경계 모호성, 동선 혼재와 같은 요소는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보조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리미널 스페이스에서는 공간의 안전성과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을 위해 개별 시설이나 장치를 추가하는 접근이 아니라, 공간의 전이 구조와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디자인적 개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상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법적 여건상 용도 자체를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색채·조명·표지를 통한 시각적 경계 설정, 유휴부지·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프로그램 도입, 시간대별 관리 주체 지정 협정 등 현행 법규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공간디자인 전략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즉, 리미널 스페이스의 문제는 '무엇을 더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5. 2. 1. 공간디자인 관점의 학술적 기여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가 CPTED 요소의 적용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리미널 스페이스를 범죄환경 형성의 선행 공간 조건으로 설정하여 범죄와 공간의 관계를 재해석하였다. 둘째, 리미널 스페이스 관점에서 CPTED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CPTED를 독립적인 해결책이 아닌 공간디자인 전략의 일부로 재위치시켰다. 셋째, 중소도시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 혼합 지역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대도시 중심의 범죄환경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중소도시 공간의 특수성을 조명하였다.

5. 2. 2. 공간디자인 실천에 대한 시사점

공간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신토평먹자거리 사례는 리미널 스페이스가 우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이용 방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성·고착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공간디자인에서는 이러한 전이적 공간을 사전에 인식하고, 경계 설정, 시각적 연속성 확보, 야간 이용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등 디자인적 개입을 통해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미널 스페이스에 대한 디자인 개입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공간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단일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유사한 가로 규모와 시설 구성을 지닌 타 도시 사례와의 정량적 비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핵심 보완 과제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 지역에 동일한 5대 리미널 특성 척도를 적용하여 신토평먹자거리의 상대적 위험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 발생 지점 자료의 제공이 제한되어, 필지 단위의 건축물 용도와 방범시설 위치를 범죄 지점과 직접 대응시키는 정밀한 물리적 구조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활용된 주민 설문은 구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목적의 조사로, 리미널 스페이스에 특화되어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지에 특화된 설문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공간디자인 개입 이후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1. Appleton, J. (1975). *The experience of landscape.* Wiley.
2. Brantingham, P. L., & Brantingham, P. J. (1995). Criminality of place: Crime generators and crime attractor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3*(3), 5–26. https://doi.org/10.1007/BF02242925
3.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588–608. https://doi.org/10.2307/2094589
4. Cozens, P., & Love, T. (2015). A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30*(4), 393–412. https://doi.org/10.1177/0885412215595440
5. Crowe, T. D., & Fennelly, L. J. (201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3rd ed.). Butterworth-Heinemann. https://doi.org/10.1016/C2012-0-03280-2
6. Fisher, B. S., & Nasar, J. L. (1992). Fear of crime in relation to three exterior site features: Prospect, refuge, and escape. *Environment and Behavior, 24*(1), 35–65. https://doi.org/10.1177/0013916592241002
7. Haselton, M. G., & Buss, D. M. (2000). Error management theory: A new perspective on biases in cross-sex mind rea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81–91. https://doi.org/10.1037/0022-3514.78.1.81
8.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9.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Macmillan.
10.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4799), 280–285. https://doi.org/10.1126/science.3563507
11. Trigg, D. (2012). *The memory of place: A phenomenology of the uncanny*. Ohio University Press.
12. Turner, V. (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Aldine Publishing Company.
13. van Gennep, A. (1960). *The rites of passage* (M. B. Vizedom & G. L. Caffee, Tra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9).
14. Vogt, B. A. (2005). Pain and emotion interactions in subregions of the cingulate gyrus. *Nature Reviews Neuroscience, 6(7), 533–544. https://doi.org/10.1038/nrn1704*

15. Wilson, J. Q., & Kelling, G. L. (1982).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The Atlantic Monthly, 249*(3), 29–38.
16. Won, Y. J. (2026). *A Study on Cognitive Risk Structure and Fear of Crime Formation Mechanisms in Urban Liminal Spaces*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리미널 스페이스의 구조적·심리적 취약성과 범죄환경의 상관성 분석

원유진[1], 조택연[2*]

[1]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박사, 서울, 대한민국

[2]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서울, 대한민국

초록

연구배경 도시 범죄 환경은 점차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간 구조와 환경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공간의 소유, 기능적 정체성, 감시 체계가 모호해지는 전이적 공간은 중요한 도시 범죄 환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일반적으로 리미널 스페이스(liminal space)로 불리며, 공간적 불확실성과 행위의 모호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은 범죄 기회를 증가시키고 이용자의 범죄 두려움을 강화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구리시 신토평먹자거리 일대(토평동 977-18 일원, 약 5.4ha, 제2종일반주거지역)를 대상으로 리미널 스페이스의 공간적 특성과 범죄 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범죄 통계 분석, 물리적 공간 구조 분석, 현장 조사(n=12회), 주민 인식 조사(n=487, n=248), 심층 인터뷰(n=15)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범죄 발생은 주요 가로 전면보다 근린생활시설 측면 주차장(경계 전이형), 공·폐가 인근 주차장(기능 소멸형), 공원 후면 진입로·주거시설 사이 좁은 골목(통과 잔여형)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공원이 맞닿는 전이적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 구역의 야간 회피율은 59~92%로 비리미널 대조구역(28%)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CCTV·조명이 설치된 구역에서도 불안이 지속되는 'CPTED 역설'이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복합 용도 도시 공간의 범죄 환경을 단순히 기존 CPTED 요소의 부족으로 해석하기보다, 리미널 스페이스의 구조적 특성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전이 공간 관리, 시인성 연속성 확보, 영역성 강화, 공간 활성화 전략과 같은 공간디자인적 접근이 도시 안전 환경 개선에 중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리미널 스페이스, 공간디자인, 범죄환경, CPTED, 체감안전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방치된 도시 공간의 인지적 위험 구조와 범죄두려움 형성 메커니즘 연구」(홍익대학교, 2026)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교신저자 : 조택연 (taigyoun@hongik.ac.kr)